

“광주, 정 많고 친절하지만 소개할 만한 랜드마크 없다”

●외국인·외지인이 바라본 광주

姜시장, ‘맛·맛·의’ 주제 이색 정책소풍 개최 길길 곳·관광지 영어 설명 등 부족 한목소리

광주시는 지난 20일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외국인·외지인 눈으로 바라본 광주의 맛·맛·의’를 주제로 이색적인 정책소풍을 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서구 쌍촌동의 한 외국인 게스트하우스에서 2번째 정책소풍을 개최했다.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중인 페드로 김(Pedro Kim·김현석), 프랑스 출생으로 전라도를 알리는 유튜브 채널 ‘JEOLLA GO’를 운영 중인 레아 모로, 부산에서 태어나 광주에 정착하면서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박상현 대표, 일본에서 태어나 워킹홀리데이로 카페에서 근무 중인 하타지 카에데, 몽골에서는 한국인으로 한국에서는 몽골인으로 불리며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조

세화씨를 초대했다. 이번 정책소풍은 소수자·약자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다양성이 인정받는 ‘포용도시 광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자리로 외국인·외지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광주에 대한 솔직한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됐다.

강 시장과 참석자들은 광주에 정착한 계기, 광주살이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 광주의 볼거리와 먹거리, 5·18민주화운동과 광주정신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특히 참석자들은 “광주는 정이 많고, 친절할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라며 광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또 광주의 이미지로 5·18민주화운동과 금남로로 상징되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무도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구의 한 외국인 게스트하우스에서 외국인·외지인들과 광주에서의 일상체험, 문화·관광 등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광주시 제공>

산, 맛있는 음식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반면, 광주의 부족한 점으로는 가족·

친구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소개할 장소와 체험 부족, 복합쇼핑몰 등 길길 곳 부족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 한글

만 있는 음식점 메뉴판·행사 포스터, 관광지·관광서 방문 시 영어 설명 부족 등이 꼽히기도 했다.

레아 모로씨는 “광주의 주요 여행 홍보 채널에 영문 표기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관광서나 관광지에 영문 표기와 친절할 설명이 곁들여진다면 광주의 인상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세화씨도 “한국 병원에서 근무한 지 13년이 됐다. 의료관광 외국 손님이 오면 도시의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먹자골목으로 자주 안내한다”며 “장기간 머물 숙소나 도시 랜드마크로 여겨질 만한 관광지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포용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는 보물같은 문화·관광·역사 자원이 풍부하지만 장소의 이야기를 엮는 스토리텔링이 부족하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도 상대적으로 적다”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잘 꿰어 재미와 다름은 있어도 차별은 없는, 모두가 살기 좋은 포용도시 광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강기자

전남 증가문화 계승·발전 방안 논의

道, 국립아시아문화전당서 전남증가 심포지엄

전남도는 전남 증가문화 계승과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2023 제7회 전남증가 심포지엄’을 지난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했다.

(사)전남증가회가 주관하고 전남도·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엔 지역 종손·종부는 물론, 전남증가회원과 학계, 일반 시민 등 200여명이 넘는 정중이 참여했다.

특별 초청된 한경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증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과 딜레마’를 주제로 한 기조 발표에서 “증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는 간단히 접근할 사항이 아니며 전체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의 문제를 부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사무총장의 기조 발표는 종가나 증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및 세계화를 위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가 됐다.

주제발표에서 이재태 전남도 의원은 ‘전남증가 역사문화 진흥 조례 제정의 의미와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남증가 활성화에 대한 제도과 정책의 중

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퇴계 증가 차종손인 이치영 공주대 교수는 ‘증가문화 계승의 구조와 현상 및 과제’라는 주제로 퇴계 증가가 문 차기 종손이 될 자신이 처한 실제 상황과 경험을 생생하게 발표, 종손·종부 등 참석자 증가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또 전통 건축문화 연구학자인 신웅주 조선대 교수는 ‘남도 한옥의 공간 성격 및 건축의 독특성’을 남도 증가 현지 조사 자료를 통해 발표했으며 정혜경 호서대 명예교수는 ‘증가 음식문화의 특징 및 유행화 방안’이란 주제로 남도 증가 음식 연구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받았다.

발표된 증가 세계화, 제도와 정책, 증가 계승, 증가 건축 및 증가 음식문화 등 각 주제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과 정중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 밖에 특별 부대행사로 남도 증가 음식 전시행사도 열렸다. ‘남도 증가맛과 멋’이라는 주제로 녹우당 다과상,

소쇄원 주안상 등 남도 증가의 접빈상 차림과 5개 증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김치 10종을 재현해 전시하는 등 남도 증가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줘 호평 받았다.

양국진 문화예술과장은 “국내 최고 권위 학자들이 내놓은 수준 높은 연구 내용과 토의 결과를 종합 분석해 증가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1면 ‘복합쇼핑몰’서 계승

롯데의 행보를 관망하고 있는 광주시는 어떤 형태로든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3월 중순께 롯데 관계자가 인사 발령에 따른 방문을 통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고 롯데쇼핑 부회장도 공식화한 만큼 복합쇼핑몰 추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백화점의 경우에도 롯데가 신세계보다 매출이 적어 복합쇼핑몰 광주 진출에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구호체계 점검·구축

광주시,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정비

광주시는 21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정비, 거점 대피시설 지정, 재해구호물자 점검 등 구호체계를 점검·구축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높은 강수량이 예상된다. 이에 광주시는 4·5월 임시주거시설 174곳과 재해구호물자(응급구호세트 646개·취사구호세트 149개)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6월 초에는 5개 자치

구 이재민 구호 담당자와 실무회의를 갖고 호우 대비 이재민 구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자치구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143곳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기금 1억4천30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까지 자치구별 1개소씩 ‘거점 대피시설’을 지정하도록 했다.

거점 대피시설은 지역 임시주거시설 가운데 접근성이 높고 충분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한다. 평시에는 기존 시설대로 운영하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에는 일시적으로 대피시설로 운영한다.

광주시는 호우 상황에 대비해 자치구와 긴밀한 구호체계를 유지하고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임시주거시설을 개방하고 재해구호물자를 배부해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임시주거시설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임시주거시설’로 검색하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박선강기자

남약신도시 오룡지구 토지 제공급

유찰 35필지 일반 수요자 대상

전남개발공사는 21일 “무안군 남약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있는 토지 35필지를 22일부터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제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 대상 토지는 지난해 12월 최초 공급 후 유찰된 필지로 근린생활시설용지 29

필지와 주차장 용지 등 총 35필지다.

입찰은 7월 2일부터 이틀간 온비드 입찰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개찰은 7월 5일, 계약 체결은 7월 10일부터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오룡지구 마지막 남은 물량으로 일부 용지는 남창천과 수변공원을 마주하는 일반 주거지역에 위

치하고 있으며 최고 4·5층 높이로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유치원, 의료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일기온도 19세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인 일반 실수요자면 신청 가능하고 대금 납부 조건은 2년 분할 납부다.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9%는 4회에 걸쳐 6개월 간격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또는 온비드(www.ordicook)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문의: 전남개발공사 분양보상처 061-280-0648) /김재정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 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본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인·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문 상담◀

절차적 편의 법적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화순읍 대단지 아파트입구 빌딩부지를 급처분합니다.

- 1) 주거1종 대지 1,505㎡
- 2) 2차선 도로변 앞면넓음 직사각토지
- 3) 유동인구 많음
- 4) 지상물 전무 내대지 바로 건축 가능
- 5) 병의원, 쇼핑센터, 오피스텔, 주차빌딩 등 다용도부지
- 6) 매매가: 원매자 상담후 시세이하 [급급처분]합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내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금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8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